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쏟아지는 봄 빛 속으로

지난 1일 열린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5km부문에 도전한 마라토너들이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은 화창한 날씨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11.5도까지 올라가는 등 마라톤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족·동료 하나된 축제 ... “우리 모두 승자”

심재덕 풀코스 대회 2연패

■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 윤여춘의 관전평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출전자들은 유난히 봄 빛이 따사로운 날씨속에 42.195km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와 10km, 5km 등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쳐며 송고한 3·1정신을 기렸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나주 남평교에 이르는 영산강변에서 열린 풀코스에서는 심재덕(40·경남 거제)씨와 진애자(50·대구시)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심재덕씨는 2시간37분21초의 기록으로 맨 먼저 결승메이플를 통과했으며 여자부 진애자씨는 3시간 7분19초를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심 씨는 풀코스 90번의 완주, 20차례 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마라톤 맨’으로 마라토너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인사다.

여자부 우승 진 씨는 6년전 첫 출전한 합천 벌골 마라톤대회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질이 뛰어난 여성 마라토너로서 지난해 3·1절 전국마라톤에서 4위에 머문 한을 이번에 우승으로 풀었다. 진 씨는 내년 2연패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하프부문에서는 백영인(35·경북 구미)씨가 1시간13분52초로 남자부 1위, 이정숙(43·충북 천안)씨가 1시간25분40초를 기록해 여자부 1위에 올랐다. 10km 남자부에서는 김수용(34·대전)씨가 33분24초로 1위, 여종선(37·서울)씨가 37분25초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5km에서는 김동욱(42·광양)씨가 15분18초09로 남자부 1위, 남미옥(42·전북 군산)씨가 17분59초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라톤대회. 회 광주일보



42.195km 풀코스 남녀 우승자인 심재덕(40·경남 거제·왼쪽)씨와 진애자(50·대구시)씨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정신 되새긴 계기 대회 운영도 깔끔해져

새 봄을 느낄 수 있는 화창한 날씨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여든 마라톤 마니아들이 겨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인상깊은 대회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누군가의 노력과 고통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43회째를 맞은 광주일보 주최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선열들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에 1년에 400여차례의 마라톤대회가 열리지만 광주일보의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역사와 감동이 살아있는 대회로 다른 대회와는 차별화가 됐다.

새 봄을 여는 3월 1일,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겨울 훈련을 마친 뒤 남녘의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훈련의 성과를 가장 먼저 체크해보고, 한 해의 마라톤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는 대회기 때문이다.

더불어 잊고 있던 3·1정신과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심신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니 마라톤 마니아들에게 이보다 더 의미있는 대회를 찾기 힘들다.

대회를 준비해온 주최, 주관사, 교통경찰관, 자원봉사자들과 주말에 열린 대회로 인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도민들의 협조에 머리숙여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비록 레이스에서 순위에 들지 않았더라도 출전자 모두가 흘렸던 땀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회였고, 광주·전남 시·도민, 대회 운영자 모두 최고가 된 대회였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민주주의의 성지 빛고를 광주에서 내년엔 열릴 제44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더 많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MBC마라톤 전문해설위원>

골프·윈도 회원권

골프장 시세/회원권 시세/회원권

골프장 시세	골프장 시세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

문의: (062)351-0095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풀코스 남자	풀코스 여자
1. 심재덕 (2시간 37분 21초)	1. 진애자 (3시간 07분 19초)
2. 양석훈 (2시간 38분 16초)	2. 정기영 (3시간 10분 22초)
3. 황찬일 (2시간 49분 50초)	3. 송미숙 (3시간 16분 49초)
4. 김성익 (2시간 49분 50초)	
하프 남자	하프 여자
1. 백영인 (1시간 13분 52초)	1. 이정숙 (1시간 25분 40초)
2. 백정일 (1시간 13분 54초)	2. 김윤경 (1시간 25분 49초)
3. 서건철 (1시간 13분 55초)	3. 유정미 (1시간 26분 19초)
10km 남자	10km 여자
1. 김수용 (33분 24초)	1. 여종선 (37분 25초)
2. 박승근 (36분 02초)	2. 김예경 (41분 42초)
3. 신하길 (36분 00초)	3. 이영순 (43분 32초)
5km 남자	5km 여자
1. 김동욱 (15분 18초)	1. 남미옥 (17분 59초)
2. 신현보 (15분 20초)	2. 유수향 (18분 26초)
3. 황용범 (15분 30초)	3. 한희순 (18분 56초)